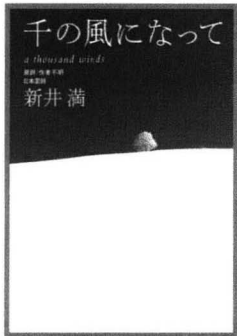


Japaness

천千의 바람이 된 사람

千の風になって



원제 천의 바람이 되어千の風になって
지은이 작자 불명
일본어판 아라이 만新井 満
출판사 講談社

홍성민 | 번역가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본다. 오늘따라 유난히 파란 하늘. 그 파란빛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창문 밖에서 웅웅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람이 창을 친다. 창문을 밀어 열자 소리와는 달리 바람은 조용히 방안으로 들어와 내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버지….

지난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른이니까 견뎌야 할 것 같았다. 슬픈 것도, 허전한 것도, 그리운 것도 다 참아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나로서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솔직히 알 수 없었다. 그런 내게 누구의 위로보다 큰 힘이 된 책이 있다. 《천千의 바람이 되어》라는 시집이다.

천의 바람이 되어

내 무덤 앞에서 / 울지 마세요 //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 천의 바람. / 천의 바람이 되어 // 저 넓은 하늘을 / 지나가고 있습니다 // 가을에는 빛이 되어 / 밤에 내리찍고 / 겨울에는 다이아몬드처럼 / 반짝이는 눈이 됩니다 // 아침에는 새가 되어 / 당신의 잠을 깨웁니다 / 밤에는 별이 되어 / 당신을 지켜줍니다 // 내 무덤 앞에서 / 울지 마세요 //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 나는 죽지 않았어요 // 천의 바람. / 천의 바람이 되어 // 저 넓은 하늘을 / 지나가고

있습니다 // 천의 바람. / 천의 바람이 되어 // 저 넓은 하늘을 / 지나가고 있습니다 // 저 넓은 하늘을 /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원래 영어로 되어 있다. 원제는 'a thousand winds'. 그것을 일본어로 옮겨 아름다운 사진 속에 담아놓은 것이 《천千의 바람이 되어》다. 시집에는 '후기를 대신한 10개의 단장斷章'이라는, 엮은이의 에세이도 수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의 원작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지만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금씩 변형된 버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 이 시는, 1977년 영화감독 하워드 호스의 장례식을 비롯해 1987년 마릴린 먼로의 25주기와 2002년 미 9·11 테러 1주년 추도모임 때도 낭독되었다. 이렇게 《천千의 바람이 되어》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했다.

시집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시를 옮긴 아라이 씨의 상상이다. 그는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가로, 작사와 작곡은 물론 사진가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아라이 씨는 이 시를 대하고 나름대로 작가의 국적과 성별을 추리해 봤다. 깊은 명상 속, 눈을 감은 그 앞에 작가의 얼굴이 떠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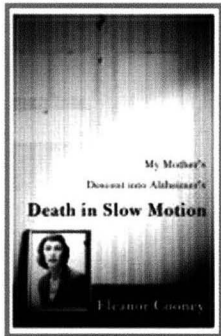
랐다. 한 인디언 여성이었다. 옛날 어느 인디언 부락에 우과시(눈)라는 소년과 레이라(바람)라는 소녀가 있었다. 소꿉친구인 둘은 함께 성장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했다.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되면 서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레이라는 예쁜 딸을 낳고 숨을 거둔다. 사랑하는 아내를 땅에 묻던 날, 우과시는 딸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한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우과시는 우연히 침대 밑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한다. 자신이 죽은 후 뒤에 남겨질 우과시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레이라의 편지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천의 바람, 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이라가 쓴 편지, 그러니까 바람이 쓴 편지가 바로 이 '천千의 바람이 되어'라는 것이다. 뒤에 남겨진 생자生者를 위로하는 사자死者가 보내는 시. 죽음과 재생의 시. 《천千의 바람이 되어》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시다.

열어 놓은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우과시가 그랬듯이 나도 바람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본다. 아버지….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쿠니의 회고록 *Death in Slow Motion*



원제 Death in Slow Motion
지은이 Eleanor Cooney
출판사 HarperCollins

이유정 | 에릭양 에이전시

“알츠하이머 병은 마치 죽음이 슬로 모션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쓴 저자 엘리노어 쿠니 Eleanor Cooney는 그 시절을 이렇게 정의한다. 흔히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 병은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배우 찰턴 헤스턴 등 유명인 때문에 더 잘 알려졌는데, 말 그대로 점차 기억력이 상실되고 지적, 정서적 장애로 발전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뇌질환의 일종이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천천히 죽어가는 동안 그를 간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아름답던 모습을 잃고, 사랑스럽던 재치와 유머가 사라지고, 함께 나누었던 행복한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저자 엘리노어 쿠니의 어머니 메리 뒤랑 Mary Durant은 역사소설가로 아름다운 외모와 감각적인 말솜씨, 우아한 태도와 유머감각의 소유자였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는 저자의 고백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련되고 독창적이던 어머니가 75세의 나이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을 때, 그녀와 형제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자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슬픔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마이크 하우드 Mike Harwood는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이었다. 44세 나이에 그녀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12살이나 연하였지만 따뜻하고 친절하고 성숙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서로 사랑하게 된 그들은 이후 거의 30년을 함께 보냈던 것이다. 평생의 반려자로 사랑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신의 뜻”이라고 위로하는 친지에게 “그렇다면 신은 살인자”라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비통한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녀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에 잠겨 버렸고,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 말하자면 병에 걸리고 기억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과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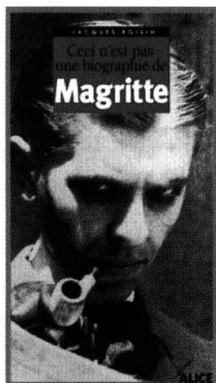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심정과 고된 나날들, 죽음이라는 끝으로 이어져 있는 길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을 담담하면서도 잔잔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회고록은 저자 스스로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진혼곡인 동시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낯선 독자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감동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점차 어머니의 모습을 한 다른 누군가가 되어 갔다. 이 사람은 우리 엄마처럼 생기고, 엄마처럼 옷을 입고, 엄마처럼 말을 했지만, 엄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다’는 쿠니의 솔직한 묘사는 병으로 인한 증상뿐 아니라 그런 어머니를 보살피는 딸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어쩌면 그녀의 경험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만나게 되는 삶의 단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만큼 더 가슴 아프게,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 작품은 분명 드물게 만나는 수작秀作으로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추천**

French

착시와 상징 속에 감춰진 리얼리티

Ceci n'est pas une biographie de Magritte



원제 Ceci n'est pas une biographie de Magritte
 지은이 자크 루아쟁(Jacques Roisin)
 출판사 Alice(2000)

최혜진 | 예담출판사 편집부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벨기에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 화가, 작가, 그래픽디자이너, 광고업자이면서 클래식 음악과 추리소설을 광적으로 좋아했던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초현실주의자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넘치는 영감과 천부적인 재능으로 벨기에 초현실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고 어느 비평가는 '상식이 능욕 당하는 사태'라고 표현했다.

가장 비현실적인 것을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양식으로 친근하게 접근하는 마그리트의 독특한 화풍은 환각의 이미지 그 자체이다.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하나의 화면 속에 담아낸 작품들은 실제와 가상,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편의 부조리극인 셈이다.

착시와 상징, 미스터리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풍부한 영감은 가장 쉽게 촉지할 수 있는 현실에서 길어온 것이지만 이것은 일상의 리얼리티가 아닌 꿈이나 상상 속에 등장하는 리얼리티를 확실히 존재하는 것처럼 제시한다는 데서 놀라움을 준다.

화가 마그리트 이전의 르네를 탐색해 나가는 《이것은 마그리트의 전기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biographie de Magritte》는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는 화가의 삶, 특히 그의 어린 시절을 심도 있게 짚어나간다.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오랜 시간 마그리트를 연구해 온 작가가 6년 동안의 탐색 끝에 완성한 책으로, 어린 르네를 기억하는 주변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신빙성을 더하며 또한 화가가 자주 다녔던 장소와 주변 인물들 그리고 당시 신문과 자료들까지 충실하게 살핀 결과물이다. 수 차례의 인터뷰와 작가의 현장체험을 토대로 드러나는 화가의 어린 시절은 무엇보다 마그리트의 가족이 주된 축을 이루며 전개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에 대한 기억과 문학과 영화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형제들과의 각별한 관계, 그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화가로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머니의 자살 등 그가 탐구하고 싶어했던 어두운 과거와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1898~1912년의 시기와 1912~1926년까지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다. 1912년 이후는 어머니가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하고 르네가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시점으로 화가의 본격적인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기호들이 삶을 통해 감성적으로 전달된다.

1973년에 미셸 푸코가 마그리트에 관한 책을 출간한 이래 화가의 삶과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르네 마그리트의 《카탈로그 레조네 Catalogue raisonné》가 이미 여러 권 출간되었다. 이 책은 삶과 작품을 따라가는 기존 예술전기의 고전적인 틀에서 벗어나 특정 시기를 철저히 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예술가의 전반적인 삶을 느끼도록 했다. 또한 스물여덟 살까지의 유년기와 청년기의 삶을 통해 마그리트의 그림이 담고 있는 환상과 공포, 신비주의의 배경을 드러냄으로써 화가의 숨겨진 얼굴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저술이 될 것이다. ■